

# “건설경기 IMF 때보다 안 좋다” 위기 내몰리는 일용직

### 광주 북구 인력사무소 찾은 50명 중 30여명 발길 돌려 날 풀려 수요 많을 시기인데 ‘찬바람’ 일용직 생계 위협 광주시 지난해 4분기 건축허가 260건...전년의 ‘반토막’

“오늘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7일 새벽 5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인력사무소 앞. 동이 트기도 전 일찍이 인력사무소를 찾아온 하모(59)씨는 희뿌연 담배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 핀 콩초를 손가락 끝으로 꾸깃꾸깃 짓어기는 그의 얼굴의 구김살도 덩달아 깊어졌다.  
하씨는 “요 며칠 일거리가 없어 돈벌이를 못했다”며 “오늘도 일이 없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30분 뒤 인력사무소를 찾는 발길은 그새 더 늘었다. 사무실 안 난로 주변으로 20여명의 구직자들이 둘러앉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덧없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전 6시.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은 구직자들은 초조한 지 자리를 일어나 서성거렸고, 밀려오는 잠을 깨기 위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바깥바람을 쐬러 나가는 사람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6시 40분이 넘어가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날 인력사무소를 찾은 50여명 중 일거리를 찾지 못한 고개를 떨구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30명이 남았다.  
이날 하씨도 결국 일을 받지 못했다. 그는 “요즘 건설경기가 최악이라 그런지 현상이 많이 좋고, 덩달아 일감이 없어졌다”며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

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임모(가명·57)씨 역시 사정은 딱히 딱한가치였다. 임씨는 “군을 전역해 최근 복잡한 대학생 아들이 있다”며 “아빠가 한 편이라도 더 벌여 용돈도 넉넉히 챙겨줘야 할 텐데, 잡아들에게 미안하고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와야 할 것 같다”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다.  
찾아온 구직자들이 사무실을 모두 떠나자 인력사무소 사장 손모(62)씨의 표정도 좋지 못했다. 손씨는 “아무래도 오늘은 더 이상 인력을 보낼 곳이 없을 것 같다”며 “30명 넘는 사람들이 일감을 구하지 못해 돌아간 건 인력사무소 20년 운영 동안 처음이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날이 풀리면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는 현상이 늘어나 인력 수요가 많아야 할 시기지만 인력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며 “IMF때 보다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주변 인력사무소 다른 사장들이 보내온 문자를 보여줬다. “오늘 인력이 많이 남았으니 일감이 남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건설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최근 광주 북구지역 24개 인력사무소 사장들은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인력을 원하는 곳을 공유하고 있었다. 인력사무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노력에도 워낙 공사현장이 없어 일감을 찾지 못한 사정 딱한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촉발된 건설업계의 불황에 ‘생계 최전선’에 몰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거리가 크게 줄고 있다.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 단 하루도 일을 할 경우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실제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용도변경과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건수가 2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23건)보다 39.4%가 줄었다.  
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광주의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무려 73.2%나 급감했다.  
이처럼 공사현장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도 줄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2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24.2일로 2020년 230.1일에 비해 5.9일 감소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돼 현상이 감소하면 여쩍 수 없이 채용하는 근로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든 데다, 하루라도 일이 끊기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인력사무소 안에 일거리를 찾아온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협력 확대

### 21일 이스라엘서 이노베이션 데이...자율수행·전기차 등 시너지 극대화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이 적정 강국인 이스라엘과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재단은 오는 2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양국의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양국 200여명(한국 사절단 80여명 포함)이 참여해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포럼’을 열고 양국 산학연간 네트워킹 장을 펼친다.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선박, 항공, 철도 등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 B2B 미팅을 개최해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양국 기업의 협력을 위한 행사를 포함,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양국의 산업기술협력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

간다.  
지난 1999년 제조강국인 한국은 원천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인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을 맺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지난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양국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77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 양국 정부는 그간 총 347개 과제를 접수하고 196개 과제를 승인해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재단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을 발굴하고 주력 기술·제품, 보유특허, 투자유치현황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1000대 혁신기업 디렉토리북’을 제작해 양국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등 과제 기획 성공률 제고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조약의 전면 개정안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이 각각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인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모빌리티 등에 대해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신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인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도 마련됐다.  
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으며, 기업위주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로 범위가 확대됐다. 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 범위 역시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됐다.  
한편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공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한-이스라엘 공동 R&D 과제를 접수 받으며,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도 오는 5월 17일까지 1단계 EOI를 접수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양파값 30% 오르고 배값 26% 내려

### aT, ‘얼마요’ 2304호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노윤희)는 소비자들의 알뜰한 농산물 장보기를 돕기 위해 소식지 ‘얼마요’ 2304호를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얼마요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의 광주 전통 시장 소매가격을 안내하는 소식지다.  
얼마요에 따르면 양파는 장기간 보관으로 상품성 하락에 따른 재작업 비용이 상승해 1kg 당 가격 3100원으로 2주 전 가격(2380원) 보다 30% 올랐

고 전년가격(2000원) 보다는 55% 올랐다.  
반면 배와 사과와 다양한 제철과일 출하로 인한 소비분산 등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배(신고) 10개 가격은 2만8100원으로 전년(3만8000원)보다 26% 하락했고 사과(후지) 10개 가격은 2만5700원으로 전년(3만3000원)보다 2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T는 합리적인 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가격정보와 제철 농수산물을 KAMIS(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스토어’로 새출발

### 삼성전자는 오프라인 매장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8일부터 ‘삼성스토어(Samsung Store)’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프라인 매장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8일부터 ‘삼성스토어(Samsung Store)’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360개의 디지털프라자뿐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된 전체 오프라인 매장의 명칭도 삼성스토어로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디지털프라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혁신적인 가전, IT, 모바일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가전 유통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23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스토어로 변경을 통해 갤럭시·비스포크·스마트싱스·라이프스타일 TV 등으로 한층 젊어진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삼성스토어를 차별화된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구상이다.  
삼성스토어는 ‘원 삼성(One Samsung)’이 제공하는 초연결 경험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객들이 즐겨 찾고 머무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변모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다른 업종과의 협업을 강화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삼성컬처랩(Samsung Culture Lab)’을 운영해 최신 비스포크 가전과 갤럭시 기기의 사용법을 공유할 뿐 아니라, 쿡킹·엔테리아·갤럭시 활용 스포츠 제작 클래스 등 MZ 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국민주’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581만명

‘국민주’ 삼성전자 보통주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58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7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는 581만3977명이다.  
2021년 말 소액주주 수 506만6351명과 비교하

면 1년 새 74만7626명 늘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난 임시 주총에서 공개한 작년 9월 19일 기준 주주 총수는 601만4851명이었다. 당시 소액주주 수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처음 6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석 달여간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0만명가량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 말 기준 소액주주 수 592만2693명보다도 11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연초 7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를 16조원어치 손매수했다. 다만 4분기만 놓고 보면 2조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연합뉴스

**7**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을 호남 1위



## 광주은행 신학기 교복 후원금 1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펼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이해 지역 결손가정 청소년 20명에게 교복을 후원하고자 마련했으며, 고병일 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복 후원행사를 통해 전달된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추천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은행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이어오며 총 8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중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전국 첫 중기 수출직불금 지원

### 6월까지 730곳 500만원 한도

전남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전남도는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2023년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 달러 당 월 100만원 한도로 기업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출액 1000만 달러 이하 전남지역 중소기업 730여 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신협권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속되는 국제적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직불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3.35(+0.73)
↓ 코스닥	815.76(-0.75)
↓ 금리(국고채 3년)	3.726(-0.048)
↑ 환율(USD)	1299.40(+2.50)